

- 주요 뉴스: 연준,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빅스텝 금리인상(50bp) 및 양적긴축 발표
 - EU집행위,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조치를 포함한 6차 제재안 발표
 - 러시아, 전승절인 5/9일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추측을 일축
 - 인도중앙은행, 4일 긴급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4.4%로 40bp 인상
- 국제금융시장: 정책금리 75bp 인상 가능성 배제, 연착륙 기대 강화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3.0%], 달러화 약세[-0.9%], 금리 하락[-4bp]
 - 주가: 6월 자이언트 스텝(75bp) 가능성 배제로 안도 랠리, 특히 기술주가 두각
 - 유로 Stoxx600은 연준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하락 마감
 - 환율: 달러화, dovish한 기자회견 등으로 0.93% 하락하며 일주일래 최저
 -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96%, 0.81% 상승
 - 금리: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(2년물 -14bp, 10년물 -4bp)
 - 獨 10년물은 장중 1%(15.6월래 최고)를 상회했으나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
 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51.7원, -14.7원) 1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5/4일	5/3일	전일대비			5/4일	5/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00.2	4,175.5	2.99%	국채 금리 10y	미국	2.93%	2.97%	-4bp
	유럽	441.4	446.2	-1.08%		독일	0.97%	0.97%	1bp
	중국	휴장	휴장	-	CDS 5y	한국	42bp	42bp	0bp
	일본	휴장	휴장	-		중국	77bp	80bp	-3bp
	한국	2,677.6	2,680.5	-0.11%	위험 지표	EMBI+	-	397bp	-
환율	달러지수	102.5	103.5	-0.93%		VIX	25.42	29.25	-1.81%
	유로화	1.06	1.05	0.96%		WII유	107.81	102.41	2.32%
	엔화	129.1	130.1	0.81%	원자재	구리	432.85	427.1	0.54%
	위안화	휴장	휴장	-		금	1,881.2	1,868.1	0.81%
	원화	1,266.3	1,267.8	11.8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vp는 스왑포인트 감산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,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빅스텝 금리인상(50bp) 및 양적긴축 계획 발표

- 연준은 5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0.75~1%로 50bp 인상(00.5월 이래 최대 폭)하고 양적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
- 6/1일부터 \$8.9조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(양적긴축)에 착수할 계획. 감축 규모는 6~8월 3개월간 매월 \$475억(국채 \$300억, MBS \$150억)에서 9월 \$950억(국채 \$600억, MBS \$350억)으로 확대할 예정
-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게 지속되는 가운데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한 공급차질 악화 등이 물가에 추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주시
- 한편 파월 의장은 양호한 고용지표 및 민간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
- 향후 금리인상에 관해서는, 차기 회의에서 두어 차례 50bp씩 금리를 인상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위원회 내부의 광범위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, 75bp 인상은 적극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U집행위,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조치를 포함한 6차 제재안 발표

-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산 원유수입 6개월 내 중단 및 석유수입 연내 중단 등 에너지 제재조치 외에도 스베르뱅크 등 러시아 3개 대형은행의 SWIFT 퇴출 및 개인제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. 제안 발효는 EU27개 회원국의 동의 필요

■ 러시아, 전승절인 5/9일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추측을 일축

- 드미트리 페스코프 정부 대변인,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인 5/9일에 러시아의 전면전 선언 및 총동원령 발표 가능성을 극구 부인. 일각에서는 9일 종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제기

■ 러시아, 4일 만기도래 국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며 부도 위기를 모면

- 러시아는 지난달 상환에 실패해 유예기간(30일)이 주어진 6억 4,900만 달러의 부채를 4일 상환하며 최종부도를 모면. 자금출처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, 금융제재의 영향이 없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
- 한편 미국 금융회사를 통한 러시아 국채이자 등의 지급은 25일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바,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달러 및 유로화표시 채권의 부도 위험은 지속

■ 엘런 미 재무부 장관, 내년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기대 및 연착륙 가능성

- 엘런 장관, 미국은 내년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.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성공한다면 연착륙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
- 소비자물가 급등 불구,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볼커 시대의 인플레이션과는 다른 유형

■ 인도중앙은행, 4일 긴급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4.4%로 40bp 인상

- 인도 중앙은행은 물가 상방압력 심화로 정책금리를 40bp 인상하고 지급준비율(CRR)도 4.5%로 50bp 인상. 인도의 3월 인플레이션은 6.95%로 목표범위(2~6%) 상한을 상회했으며 4월 물가상승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

■ 브라질 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로 정책금리를 12.75%로 100bp 인상

-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, 정책금리(Selic Rate)를 11.75%에서 12.75%로 100bp 인상. 시장예상에 부합하는 결과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4일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4월 서비스PMI: 57.7, 3월(55.6), 예상치(57.7)
- 유로존 3월 소매판매(전월비): -0.4%, 2월(0.4%), 예상치(-0.1%)
- 미국 3월 무역수지: -\$1,098억, 2월(-\$892억), 예상치(-\$1,070억)
- 미국 4월 ISM 비제조업 PMI: 57.1, 3월(58.3), 예상치(58.5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56, E-mail wjhwang@kcif.or.kr